약속의 하나님 – 긍휼의 하나님

곁에

빅 콜먼

소개

많은 경우,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의 결점에 굴복할 때, 즉 "날려버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때로 우리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나는 엉망이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잘못을 저질렀을 뿐이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그분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나의 죄와 고백에 어떻게 반응하실까? 나는 내가 한 일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돌이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

이 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지시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신의 약점에 굴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과에 사용된 성구

신명기 28

신명기 30:1 – 10

요한복음 3:16 – 17

로마서 8:32

출애굽기 34:6 – 7

배경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끝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주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 외에도, 모세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것과 관련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 즉 40년 전에 애굽을 떠난 성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과 불경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모세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는 기원전 1406년경 모압 평원.

있는 그대로 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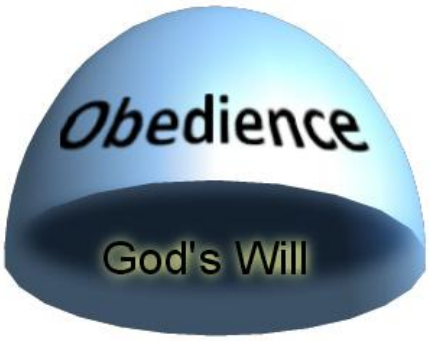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받는 축복과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두 결과의 대조는 매우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먼저 순종에 대한 축복을 읽는다. 신명기 28:1-14을 읽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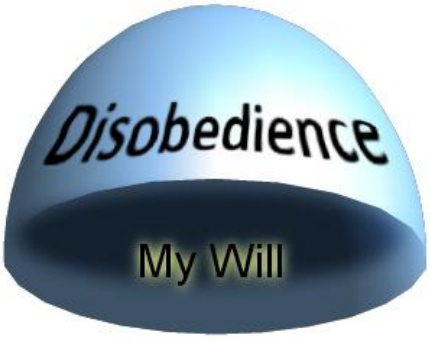
이러한 축복은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 즉 원수로부터의 보호, 그들의 노동, 그들의 재정, 심지어 "그들의 몸의 열매", 즉 그들의 자녀들로부터의 보호까지 포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은 후에는, 여러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좋아, 나는 오늘부터 순종하기 시작하고 싶어!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신명기 28:15-48을 읽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불순종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들은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저주를 읽은 후에는 "불순종은 가치가 없어. 그 모든 것을 겪고 싶을 리가 없어요." 불행하게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놓칠 수 있지? 결과를 알면서도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정직하다면, 많은 경우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가능한 결과를 충분히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너무 나쁘지 않기를 바라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서 그것들을 차단한다. 왜 그렇게합니까? 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행동할까요? 아래 다이어그램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두 가지 요소,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과 우리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소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면, 순종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많이 고군분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흐를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불순종 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당신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는 하는가, 아니면 늘 그날의 활동에 생각을 집중하고 있느냐?

>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극복해야 할 습관이 있는가? 순종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망은 어떠한가? 만약 그렇다면, 주님이나 다른 경건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몇 가지 장애물의 목록이다. 당신은 어떤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생각나는가? 이러한 각각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두려움*
-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욕망*
- *나쁜 습관*
- *자신을 높이려는 욕구(자부심)*
- *분노 또는 비통함*
- *하나님이나 그분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족*
-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 *하나님의 음성을 모른다*
- *내면의 상처 (타인의 행동의 결과)*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그들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기초를 놓고 모세는 신명기 30장을 시작합니다. 1-3절을 읽어보세요. 몇 가지 핵심 단어와 구문을 강조하기 위해 NIV(New International Version)의 아래 구절을 제시했습니다.

> *내가 이 모든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을*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방 가운데* 흩으시는 *곳마다 너희가 그것들을 마음에 간직* 할 때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 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따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에게 복종할 때에,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너의 복을 회복*시키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너를 *흩으*신 모든 나라에서 *너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 .

우선, 모세는 이 구절을 "이 모든 축복과 저주가 있으면..."으로 시작하지 않고 "*언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앞으로 정말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될 것임을 알려 주고 있었다. 그분은 또한 그들이 정말로

흩어질 것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주님께 돌아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분은 흩어진 모든 나라에서 "여러분을 다시 모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들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알려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들의 불순종은 우상 숭배,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 이교도적인 삶, 심지어 인간 희생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흩어짐"은 다른 나라들에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잡히는 형태였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은 후, 이스라엘은 결국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었다. 불행히도 우리에게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때때로 비극이나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비극이나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꼭 이렇게해야합니까? 그것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흩어짐"은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은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은혜롭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판자를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요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요점: 당신은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 영광, 충실함

2절은 희망을 줍니다. 첫째, 그들의 고난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가 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재산을 회복* 하고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 그 결과,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즉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그분께 돌아간다면,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불순종에는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는 "왜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셨을까?"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다
- 그분은 충실하십니다

요한복음 3:16-17과 로마서 8:32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일부(예수)를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공의를 보이실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사용 된 히브리어 단어 중 하나는 "kabowb"입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예, 영광, 부, 위엄, 명성, 존경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그것은 그분에게 더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분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거나 긍휼을 베푸실 때, 그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즉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더 많은 희망

4절은 우리가 넘어진 후에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더 많은 이유를 제시한다. 4절을 읽어 보세요. 아무리 많은 나라와 백성이 얼마나 멀리 흩어지든 간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될 것이라는 뜻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에는 결과가 따르며, 때로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최소한 우리는 시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요점: 우리는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5절은 하나님의 성품의 세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보여주며, 그 약속이 "흩어진" 히브리인들에게 직접 주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 그가 네게 선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불순종하여 흩어진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어디에나 정착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약속을 지키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로 흩어지게 할 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번성시키실 뿐만 아니라 "... 너를 그들의 조상보다 번성하게 하라 ..." 하나님께서는 조상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당신에게 "여분"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동정심을 가질 자격이 없을 때 그분이 당신에게 동정심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당신에게 충실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5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lebab"에서 유래했습니다.

- 내면의 사람, 마음, 의지, 마음, 영혼, 이해
- 성향, 결단력, 결단력(의지)
- 양심
- 마음 (도덕적 인격)
- 식욕의 자리로
- 감정과 열정의 자리로
- 용기의 자리로

하나님의 행동은 그들 존재의 핵심을 꿰뚫어 볼 것이다. 하나님은 피상적인 변화에 관심이 없으셨고, 영구적인 변화, 즉 그들의 "속사람"의 변화, "그들의 식욕과 감정과 용기의 자리"의 변화에 관심이 있으셨으며, 이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입증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을 그 지점으로 데려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기억하십시오 – "흩어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흩어짐"을 사용하십니다. 그는 그분께 피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점: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요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심으로써 그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분은 다시 그들의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요점: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겪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보여줍니다. 그들의 "형벌"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풍부하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풍요로운"이라는 단어는 다음을 의미하는 "yathar"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 과잉을 갖다
-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 조금 남았을 때
- 풍요롭다
- 측정할 수 없는 것이 되다
- 경계를 초과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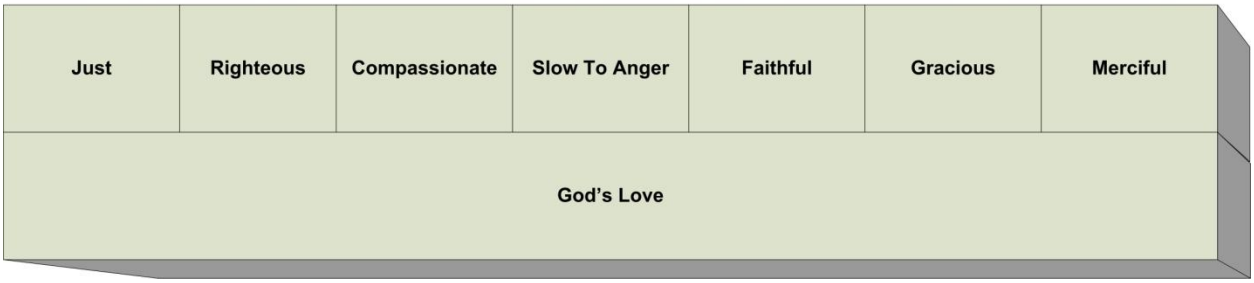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축복을 원하십니다. 축복은 삶의 모든 영역, 즉 자녀, 가축, 농작물(직업)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로 인해 선을 위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10절은 9절에 요약된 축복의 상태, 즉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상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돌아갈 때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약

하나님의 마음은 신명기 30장의 이 구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출애굽기 34:6-7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응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Aspects of God's Character
Build on His Love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속히 회개하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아십시오.